

뉴 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  
민주적 시민성에 기초한 통일리더십  
함양 방향을 중심으로

오 기 성 (Oh, Gi-sung) \*

(E-mail : oks@ginue.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3월 21일

논문심사일 : 2012년 4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21일

\* 학위취득대학 : 서울대학교  
현직: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뉴 미디어 시대의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  
민주적 시민성에 기초한 통일리더십  
함양 방향을 중심으로

<국문요약>

이 연구는 뉴미디어 시대의 교육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 연구는 뉴미디어 시대의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뉴미디어 시대의 개념과 특징,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뉴미디어 시대의 스마트 혁명, 사회 영역에서 스마트 혁명의 영향, 뉴미디어 시대의 교육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현재의 통일교육을 Web 1.0 ≧ Web 2.0 ≧ Web 3.0 형태의 통일교육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 즉 공감대 결핍의 통일교육, 양 중심의 통일교육 강조, 희망이 결핍된 교육, 욕심 많은 강요된 교육이라는 특성을 지님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면을 극복하고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민주적 통일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은 우선, 자기주도적 학습 성향, 개방성, 즉각적 접속 가능한 스마트 러닝 경향성, 민주적 시민성에 기초한 개방성, 창조성, 유연성을 갖춘 스마트 세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통일교육에서 SNS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 개방성에 기초한 아이디어 창출 능력, 통일 한국에서 갈등 해결 능력, 통일을 달성하려는 소망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민주적 시민성, 민주적 통일리더십, 통일교육, 스마트 혁명,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I. 서론

교육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크고 작은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이다. 또한 교육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자극함으로써 이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일교육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은 통일을 이루고 통일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실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통일교육에서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 중심의 일방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학습자간 상호작용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상호작용에 뉴미디어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즉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SNS를 통하여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문화에 부응하고, 교수자와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다변화시킴으로써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관 및 통일관과 관련한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의 통일교육은 종전의 일방향적이고 공감대가 낮은 통일교육을 극복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뉴미디어를 통한 교육의 문제점에 주목하기보다는 통일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학교 통일교육에 주목하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민주적 통일리더십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뉴미디어 사회의 특징

### 1. 뉴미디어의 변화와 특징

뉴미디어(new media)란 기존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생성, 가공, 전달, 축적, 이용하도록 하는 수준 또는 매체를 의미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물질의 생산, 소비를 중심으로 한 공업사회에서 생산, 전달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 점차 이행은 적절한 정보를 적시적소에 경제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정보매체의 출현이 요구된다(차현희 2007, 207).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관련 기술의 발달로 구체화한 것이 곧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뉴미디어는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 비약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웹서비스의 도입으로 소통 채널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변화가 발생하였다. 뉴미디어의 발전 단계는 웹의 서비스 방식과 소통방식에 따라 크게 웹1.0, 웹2.0, 웹3.0 단계로 구분한다. 웹1.0 단계는 웹의 초기 모델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게재하는 형태의 소통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웹2.0 단계는 블로그와 미니홈피, UCC 등 개인화된 웹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정보의 개방성과 연결성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이 풍부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교환하는 참여의 형태를 이끌어 내는 시기이다. 웹3.0 단계는 시맨틱(semantic) 웹 기술을 통해 이용자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고 행동하는 참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1) 정치 참여의 관점에서 볼 때 웹1.0단계는 웹의 초기 모델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정치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게재하는 형태의 정치적 소통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웹2.0 단계는 블로그와 미니홈피, UCC 등을 개인화된 웹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정보의 개방성과 연결성, 상호작용성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이 풍부한 정치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고 교환하는 참여의 형태를 이끌어냈다. 웹3.0 단계는 시맨틱 웹 기술을 통해 이용자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의견을 게재하고, 정치적 행동을 하는 참여의 특징을 갖는다(김성태·김여진 외 2011, 15-23)

웹3.0 시대가 되면서 트위터, 미투데이 등과 같은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 서비스와 페이스북 등에 이르기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가 새로운 사회 참여의 기제로서 떠오르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종류 중 하나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이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Real-time Data Sharing)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이면에는 블로그 서비스와 같이 신문, 방송과 같은 기존의 매체에 비해 의견이 걸리지 않고, 개인의 솔직한 의견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그러한 정보의 공유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맞물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블로그와는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 가입자 이외에는 비공개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초대를 받거나 직접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2. 뉴미디어 시대 스마트 혁명

웹 3.0으로의 발전은 정보사회에서 스마트사회로의 이동을 가져오고 있다. 스마트 혁명은 농업혁명(농경사회), 산업혁명(산업사회), 정보혁명(정보사회)에 버금가는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사회가 정보사회와 다른 점은 대중이 스스로 생산하고 공유하는 쌍방향의 정보 유통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스마트사회에서는 창의성과 개방성에 대한 사회의 절실한 필요성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표 1> 사회패러다임의 변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스마트사회
생산요소	체력, 근면, 토지	기술, 자본, 자원	지식, 정보	유비쿼터스, 융합스마트 기기
필요인적 자원	근면한 농부	근면한 공장 노동자	지식기반 근로자	창조, 개방형 인재
생산·노동방식	자급자족, 체력	대량생산, 노동집약		스마트 워크
경영 전략	자연재해 극복	하드웨어 중심	소대량맞춤화, 지식 집약소프트웨어 중심	
핵심 가치	공동체 문화	단순 작업, 계 관료 중심	지식, 공유, 개방	유연성, 창의성, 인간중심

\* 출처: 석호익, 2010, The Future of Smart of Korea; 현대사회경제연구원, 2011, "스마트혁명이 가져온 충격과 우리의 대응", 『VIP Report』, 통권 제482호, p. 2에서 재인용.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 혁명의 특징으로는 개방과 참여, 광의의 네트워크 사회, 감성 중시 등을 들 수 있다.

개방과 참여의 측면에서는 스마트 혁명으로 개방, 참여 중심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영향 집단이 형성되고 대중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회제도를 더욱 유연화 시킨다. 광의의 네트워크 사회 측면에서는 스마트 기기로 인한 다양한 네트워크 접속이 확산되어 사회구조를 간접대면과 연결성 중심으로 변화시킨다. 감성 중시 측면에서는 동영상, 그래픽 등 오감을 자극하는 형태로 진화되면서 기존의 이성 중심의 문화 체계가 감정 중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스마트 혁명이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무엇보다도 스마트 세대의 부상과 개인주의의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스마트 세대는 현재 사회문화 전반에서 변화를 선도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 세대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속도와 변화를 즐기는데 능숙한 'n세대'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와 함께 똑똑하게 진화한 집단을 의미한다. 현재 온라인 여론은 스마트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자신들의 관심과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스마트 사회에서 개인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보다 개성적이고 자기표현의 요구가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스마트 사회에서는 관심과 가치관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행위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대경제사회연구원 2011, 7). 아래 그림은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 혁명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림 1> 사회 영역에서 스마트 혁명의 영향

스마트 혁명의 의미	<b>위험:</b> 개방형 네트워크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 과정상에 나타나는 변화 <b>불안:</b> 스마트 기술의 발전과 스마트 기기의 보급				
스마트 사회의 성격	쌍방향 정보 유통	개방성	적응 불가능 속도	창의성	지식 기반
스마트 혁명에 대한 분야별 시각 및 영향	<b>경제·산업:</b> 범위의 경제, 완전경쟁시장, 창의·혁신 정보대칭 경제시스템화    스마트 관련 산업 부상    소셜커머스 시장 성장    스마트 융합 확산    스마트 벤처 붐				
	<b>기업·경영:</b> 똑똑해진 소비자로의 시장 주권 이동 개방성 초점 사업 방식    스마트화된 마케팅 환경    스마트 소비 활성화    업무 환경 스마트화    기업 내 기업 확산				
	<b>사회·문화:</b> 개방, 참여 중심의 유연한 사회로의 진전 스마트 세대 부상    올드세대 테크스트레스    개인주의 가속화    집단지성 중요성 증대    프라이버시 유출 우려				
	<b>정치:</b> 완벽하고 신속하게 민의가 반영되는 이상 정치 접근 실시간 정치    개방 정치    소통 정치    마이크로 트렌드정치    속도 정치				
	<b>기술:</b> 인간 중심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현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용자 중심 기술 혁신    인지과학 인공지능    기술 융합 확장				

\* 출처 : 현대사회경제연구원, 2011, “스마트혁명이 가져온 충격과 우리의 대응”, 『VIP Report』, 통권 제482호, p. 7.

스마트 세대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들은 기성세대의 삶을 거부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매진한다는 점(자유)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상품과 서비스 등 모든 것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형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발굴하고 스스로 만들기도 한다(커스터마이제이션, 혁신). 그리고 이 세대는 SNS 등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공동 작업에 익숙하다(협업). 또한 이들은 궁금한 사실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보를 구한다. 모바일 기기와 SNS를 통해 결과를 전파하면서 빠르게 여론을 형성한다(실시간성, 속도). 그리고 이들은 신념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행동).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겐 국경과 시간의 장애가 없다.

주지하듯이 최근 애플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폰이 IT산업은 물론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새 서비스가 등장하여 정부와 신문 등이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적극 나서자 스마트 세대를 포함하는 모바일 세대(Mobile Generation)가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X세대, Y세대, N세대, G세대 등 주로 20대 초반 연령대의 성격과 특징을 규정하는 세대 구분과 달리 이러한 모바일 세대는 연령대가 아닌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일컫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 3. 뉴미디어시대의 교육

뉴미디어 시대는 매체의 다양성과 더불어 대중성과 대량성, 신속성, 시청각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뉴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달하게 된다. 즉 뉴미디어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달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방법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시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달 방법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컴퓨터 통신을 통해 전 세계 통신이 가능하고, 대화형 멀티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접촉이 가능한 사회가 도래했다면 교육의 방식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 및 학습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사회체제와 생활세계는 물론 교육체제와 운영방식 및 내용에도 이전의 인쇄기계가 촉발한 혁명적 변화를 능가할 만큼 강한 폭발력과 흡인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연결이 용이했으며, 교수자 없이도 학습패키지, 잡지, 방송, 신문, 컴퓨터 통신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학습 네트워크의 전방위적 확산이다. 학습환경도 시뮬레이션 환경이나 3D 가상현실에 기반을 둔 문제 또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세대에게는 주입식 교육이 적당치 않다. 이들은 이미 교과서 내용을 암기해 평가받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필요한 정보와 되짚어야 할 기억은 스마트 기기 속에 다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뉴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얻고 이를 재생산해 낸다. 그리고 이는 곧 집단지성으로서의 발전을 가져온다.

다양한 사회적 소프트웨어의 등장은 학습도구를 변화시키고 있다.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인터넷상의 상호작용 매체로는 blog, weblog, wiki, Instant Messenger, MUD, IRC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사용자들간의 소통과 연결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소프트웨어(social software)로 불리우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와 누구나 묻고 답할 수 있는 포털지식검색 서비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학습도구로서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대화의 장이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공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나치게 상업화되어 버린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

니티 이미지를 벗어나서 인간 사이의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성을 촉진하며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소프트웨어의 확산으로 학습과 놀이가 융합된 에듀테인먼트와 학습과 만남이 결합된 온라인 집단지성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김종길·박수호 2012, 48-49).

### Ⅲ. 통일교육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 1. 통일교육의 현주소

현행 통일교육의 현주소를 필자는 Web 1.0+Web 2.0 $\geq$ Web 3.0라고 표현한다. 이는 우선 이는 통일교육의 학습자들이 홈페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메일 서비스를 통해 북한사회 실상이나 남북관계 현황, 통일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게재하는 형태의 소통방식으로서 Web 1.0이 아직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특정 인이나 특정 기관, 단체를 통해 블로그와 미니홈피, UCC 등 개인화된 웹서비스를 통해 통일문제 관련 정보의 개방성과 연결성의 확대를 통해 이용자들이 풍부하게 확산된 형태라고 할 수는 없으나 관련 정보를 얻고, 일부 특정 시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교환하는 참여의 형태를 이끌어 내는 시기를 의미한다. 물론 그 교환이나 참여가 서로 고립적 내지는 배타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면 웹 기술을 통해 이용자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고,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고 관련 행동을 하는 참여의 특징을 갖는 통일교육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교육 계획 수립 과정, 수행 과정 등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공감대 결핍의 통일교육을 들

수 있다. 사회통일교육의 측면에서는 통일관련 관변, 반관변, 시민사회 단체간의 통일문제에 대한 공감대의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학교 통일교육의 측면에서는 학교의 관리자, 세대별 교사들 간의 공감대 결핍, 통일교육 연수 단체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반면 통일교육의 가이드라인으로 통일부가 발간하고 있는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학교용)의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기능은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곧 개방성에 기초한 쌍방향의 정보유통과 소통에 기초한 공감대 형성 과정보다는 특정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그 하나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른바 Web 1.0 수준의 통일교육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양 중심의 통일교육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회성 관광 형태의 현장학습, 대규모 강당에 교사를 집결시켜 놓고 시행되는 탈북자의 강연 등이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매우 대표적인 Web 1.0 수준의 통일교육이다. 문제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현장학습이나 참석수의 증대를 위한 실적형 통일교육이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에 동원된 구성원들의 통일의식을 과연 얼마나 증대시킬지 의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부류의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통일의식을 더욱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셋째,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라는 점이다. 통일과 연계되지 않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는 실패한 체제로서 북한과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희석시키고, 무관심과 기피론으로 발전한다. 예컨대 모든 부분에서 실패한 체제로서 알게 되는 시점에서 북한과의 통일의 필요성을 느낄까? 어쩌면 통일문제에 대한 호기심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달되었던 통일의 당위성마저 사라지지 않을까?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초청 강연을 통해 험벗고 굶주리며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접하게 된다면?

아울러 그동안 우리는 통일교육에서 동질성 제고를 매우 강조해 왔다. 그런데 그 동질성에 통합에 저해된다거나,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환상적 동질성'이라면? 더욱이 실패한 체제라는 결론과 실제 존재

하는 희망적 동질성도 별로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통일에 대한 희망은 무엇일까? 오히려 남북의 이질화에도 불구하고 이 이질적 측면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용, 개선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 능력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남북통합에 부정적 측면을 갖는 동질성이라고 해도 통일사회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으려 하는 통일교육을 지향해야하지 않을까?

넷째, 욕심 많은 강요형 통일교육이라는 점이다. 1990년대부터 이미 지적된 내용이지만 통일관련 교과서 내용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논의의 대부분이 추상적이고 거대담론 위주의 통일논리를 당위적인 과제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는데 있다.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의 가속화 측면에서 자신들의 관심과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스마트 사회에서의 개인주의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맹목적인 민족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더욱이 강요형 통일교육은 더욱 더 많은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내용 요소를 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에 이른다. 반면 스마트 혁명이 전개되고 있는 지식기반의 사회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탐구'가 아닌 성인, 교사, 강사 중심의 맹목적인 '전달', '훈련'이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다(오기성 2011, 50-56).

## 2. 뉴미디어 시대 통일교육의 개선 방향

스마트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변화와 속도를 즐기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N세대'의 특징에 '모바일'이라는 날개를 달아 보다 '똑똑해진' 세대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각종 정보를 얻고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실시간성'을 더한 것이 핵심 키워

드다. 이러한 스마트 세대에게 적합한 즉, 뉴미디어 시대 특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학습 형태는 s-learning라고 할 수 있다. s-learning은 자기주도성, 편재성, 즉시접속성, 개인성 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우선 자기주도성이란 자신이 휴대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자신의 주도하에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학습 방식과는 달리 학습자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s-러닝은 과거의 e-러닝에 비해 이동이 자유롭고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곳이라면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자기주도성 학습은 시간적 지리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능력에 맞는 학습을 스스로가 진행할 것 또한 의미한다. 자신의 이해 능력, 학습 능력에 따라 학습속도를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다.

편재성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학습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동성이 보장되는 휴대용 단말기를 통한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이동 중이든지 틈새시간이 생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즉시 접속성은 무선 단말기를 통해 학습을 위한 사전의 준비단계 없이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특징을 의미한다. e-러닝이 학습을 위해 학습매체가 구비되어 있는 학습환경으로 이동하는 것 대신에, s-러닝은 개인의 휴대형 단말기를 통해 편리하게 접속하여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s-러닝은 e-러닝과 접속이 다른 학습 방법으로 편리하게 학습자가 학습을 할 수 있다. e-러닝을 위해서는 장비가 구현되어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하며, 부팅 접속프로그램 실행 등의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물리적 학습의 경우 책과 같은 무거운 학습매체를 들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s-러닝의 경우 늘 소지하는 이동통신기나 PDA 폰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습매체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학습을 위한 사전

작업 또한 간단하다.

자신의 고유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텍스트나 동영상 등 다양한 학습형태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학습에 대한 내용 또한 자신이 특별히 원하는 것으로 집중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맞는 학습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다. 학습자가 주위가 산만한 곳에서 잠시 학습을 원할 경우 많은 집중력이 필요로 하지 않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스마트 혁명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창의성과 개방성, 유연성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특성은 기존의 폐쇄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이 아니다.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며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혁신하는 사람이다. 즉, 끊임없이 사고하고, 주변을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며, 자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20세기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요즘은 정보를 수집하고 기억하는 일은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많은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한발 앞서 나가서 무한경쟁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계산 잘하고 암기 잘하는 것보다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시대다.

통일교육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통일의 의미는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은 우리 민족이 나뉘어서 서로 다른 체제에 속해 살면서 형성된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은 두 개 이상의 국가사회가 단순히 하나로 되는 통일(unification)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혹자는 우리의 통

일을 분단된 조국과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재통일(reunification)이라고 규정짓는다. 여기서 재통일은 복고적인 '분단 이전으로 원상 회복'을 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가 공존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민족 성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간다는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 과정으로서 새로운 통일(new unification)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복고적인 분단 이전인 원상회복으로의 통일보다 창조적 또는 새로운 통일의 달성이 더욱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수반한다는 데 있다. 단순히 이산가족의 재회와 재결합을 완성하는 것이 분단 이전으로의 원상회복으로서 통일이라면,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삶을 영위해 온 구성원들 간의 상이한 사고방식, 가치관, 생활양식 등이 긴장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창의적 사고와 대안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은 바로 창조적 또는 새로운 통일을 위해 다가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측면은 앞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 사회를 건설하여 운영해 갈 경우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남북한이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가는 한편, 주변국을 설득하여 통일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통일을 볼 경우, 통일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은 현재의 기성세대가 아니라 바로 초중등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세대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 북한 핵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일 수 있으나, 장기간의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 수렴과정을 통해 통일사회를 이루었을 경우, 통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으로서 현재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남북한 구성원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동안 지녀온 상이한 사고양식, 가치관, 생활방식, 지역별 정치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 복지 혜택 등의 긴장과 갈등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사회의 주역이자 담당세대라고 할 수 있는 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에서 종전의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단순한 이해 수준을 넘

어 통일 이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시민성에 기초한 창의적 사고 능력과 태도 및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교육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에서 쌍방향 정보 유통과 소통, 개방성, 창의성 등에 기초한 뉴미디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소셜미디어, 특히 트위터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절차를 그룹별 프로젝트 학습의 수행절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는 학교 교실 수업을 진행한 후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것일까?'라는 과제를 블로그를 통해 제시한다. 제시한 과제는 트위터로 글이 자동 게시가 되고 교사는 트위터를 팔로우(follow)한 학생들의 트위터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을 한다.

학생들은 과제 확인 후 과제수행을 하게 된다. 과제수행 중 정보를 얻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거나 교사 또는 다른 학습자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팀별 과제가 주어졌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의견이나 정보,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과제 수행 후 교사의 트위터로 과제 결과를 전송한다. 학생들은 트윗픽 등 트위터와 연동 가능한 사이트를 이용하여 파일, 이미지,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받은 과제 제출물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수행한 부분이 있다면 역시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어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후 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결과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피드백하여 학습향상을 도모한다. 과제 제출물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복습 등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양 중심의 통일교육, 일회성 통일교육, 대규모 동원형 교육, 욕심 많은 강요형 통일교육이라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통일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이다. 대규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보다 많은 강의 내용을 주입하려는 통일교육에서 벗어

나 학습자의 생활세계와 문화, 통일교육 내용의 적정화 과정을 통해 선정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다 심도 있는 질적인 탐구 과정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교과서나, 정부 발간물 등을 통해 전달, 또는 전수받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시민성을 갖춘 학습자들이 각종 자료 검색과 의견, 아이디어에 대한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한 공감대 제고에도 기여한다. 즉 통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지도요소를 교수자의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통일교육 지침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과 질적과정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제고에 기여한다. 따라서 통일관련 현상을 볼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자의 문화나 생활세계를 고려하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시하는 지침 형성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교수자 등을 포함하는 통일교육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온라인 형태의 다양한 참여는 통일교육의 공감대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북한에 대한 실망과 이에 따른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회의론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실패한 체제로서의 북한, 통일비용 문제, 독일 통일 후유증 등이 주로 부각되어 수동적으로 학습되었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 학습자들로 하여금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다각도의 검색, 다양한 형태의 자료 분석, 서로 관점을 달리하는 자료들에 대한 검토와 비판적 사고 과정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통일 비전에 대한 희망적 관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 제고 및 긍정적인 통일관을 토대로 학습자들은 미래에 바람직한 통일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바로 통일을 보다 안전하면서도 조속히 견인하고 바람직한 통일사회를 구성,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최대한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이다.

민주적 통일리더십이란 의미는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통일리더십이라는 개념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 즉 바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민주적 시민성을 토대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과거의 Web 1.0 방식과 제한적으로 활용된 Web 2.0 방식은 성인, 교사, 강사가 통일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학습자들에게 통일 관련 지식을 전달하여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Web 2.0+Web 3.0 방식의 통일교육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통일사회를 견인하고 미래의 통일 한국을 주도할 수 있는 민주적 통일리더십을 함양하는데 통일교육의 중점을 둘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이러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민주적 통일리더십 함양 교육의 경우 그 기대효과를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IV.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기대 효과: 통일리더십 형성

민주적 시민성을 토대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 형성은 물론 뉴미디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뉴미디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스토리텔링 활용 교육, 협동학습 형태의 통일교육, 현장체험 학습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통일교육 또한 민주적 통일리더십 형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주적 통일리더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의 기대효과를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 개방성에 기초한 대안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 함양, 통일 이후 갈등의 창의적 해결 능력 함양 가승으로

통일을 소망하는 정의적 능력 함양 등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

현재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의 수요자인 학습자들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을 따르라!’는 식의 명령식·주입식 방법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보고서나 관련 연구를 통해 보면, 민주적 시민성을 함양해야 하는 학교 교실에서는 신인형 인간을 양성하기 쉬운 강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2)</sup>

통일문제와 관련한 수업은 관련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안에 의거하여 진행된다. 그러나 교사는 전수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흡수하고, 그 흡수한 지식, 정보, 기능을 학습지를 통해 재생하는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다.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는 원칙에는 틀림없으나 학습의 수동화·기계화·정형화가 수업의 활기를 떨어뜨리고 학습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드문 일이지만,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평가에 반영될 경우, 학생들은 교과서나 문제집 혹은 참고서를 통해 통일관련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데 치중하여 시험을 준비한다. 학생들이 평가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 교과서를 읽고, 정답을 맞추어 보고, 잘 맞추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훈련이다.

진정한 교육의 저력은 교사가 가르쳐 준 것을 자기 나름의 언어로 번역해서 이해하고 그 이해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고 문제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김재은 2007, 217).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의 인지 활동에 대

2) 예컨대, 2002년도 실시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통일교육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에 따르면, 학교 통일교육의 유익성에 대한 평가에서 41.6%가 유익하지 않다고 반응하였으며, 통일교육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7.7%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교육 방법은 강의식이 64.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5년 조사에서도 통일교육 수업방법은 ‘강의식’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 2004 참조).

한 길포드(Guilford)의 이론은 매우 의미 있다고 보인다. 길포드(J. Guilford)는 인지활동을 특징짓는 지적 과정에 대해 두 가지 개념을 만들어 냈다. 즉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와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이다(Guilford 2004, 444-454; 홍기철 2005, 53-54).

길포드(Guilford)가 제시한 수렴적 사고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교육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본질적 특징으로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내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통일 관련 문제는 과거의 사실과 관련된 경우 정해진 답변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해석 내용에 따라, 해석의 주체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나아가 있는 사실을 넘어 추상적일 수 있는 미래를 탐색할 경우, 예컨대 통일 사회의 비전이나 바람직한 미래상 등을 다룰 경우 고정된 답변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서 수렴적 사고가 적용될 수 있는 부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문도 엄존하고 있다.

반면, 현행 통일교육에서 통일과 관련된 특정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학습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반응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유창성)하거나, 고정적인 사고, 관습과 타성에 젖은 사고, 스트레오 타입 등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함양(융통성)시켜 왔는가를 돌아보면, 그 결과는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로 귀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강의 위주의 통일교육에서 이러한 유창성이나 융통성을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창의적 사고 기법은 주입식이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탐구능력과 창의적 해결 방안의 도출 능력을 증진시킨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내는데 해결 가능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유창성을 강조한다. 특히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하여 풍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그 아이디어 중에서 효과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

특정한 사물과 관련된 것을 자유롭게 떠올리거나 어떤 현상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연상해 내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민주적 시민성 함양에도 기여한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유창성이나 유연성을 기를 수 있다(육근철 2004, 43; Wilson and Anthony 2009, 23).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유창성의 기본 도구가 된다. 또한 관련성 있는 정보를 모두 제공한다. 이는 곧 유추능력과 연상능력 발달에 기여한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와 창의적 사고 기법의 기본이 활용된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의 성취를 위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단지 점수 획득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억지로 정해진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로서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문제에 도전하여 유창성과 유연성을 통해 적극적 자세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다.

## 2. 개방성에 기초한 대안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 함양

통일교육은 동북아 정세를 포함하는 국제정세 뿐만 아니라 남북한 관계, 그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주변국들 간의 관계의 추이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경직과 이완을 거듭하게 된다. 또한 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이중적 관점과 입장이 공존하는 복잡한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이 분단되어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체제유지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남북한은 궁극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형제라는 입장의 이상주의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 안보와 통일의 이중적 구조 때문에 통일문제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도에 의한 사고와 판단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없다. 결국 통일문제는 동포라는 성격과 경계대상이라는 성격이 공존하는

현실을 전제하고 어떤 접근방법을 통해 경계대상의 분포를 줄이고 동포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탐색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 환경 변화에 따라 남북한과 주변국들 간에 끊임없이 전개되는 대립과 협력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종합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박용현 1997, 7-8; 이근철·오기성 2000, 112-114).

그리고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관련된 학제적(interdisciplinary)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학문적인 종합성과 더불어 통일교육은 통일과정이나 방법에서도 관련된 모든 관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포용력과 유연성을 겸비한 종합적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문제는 민족구성원 모두의 이해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인식은 현재 세대간, 계층간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입장에 대해 학습자들이 개방적인 관점을 기초로 다양한 입장의 자료를 수집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곧 우리 사회 내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을 제공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여론 수렴의 광장으로 통일교육이 활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특정한 이념이나 가치관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비타협적이고 비현실적인 통일논의를 극복하면서, 개방적인 공간에서 다양한 소통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공유, 대안적 아이디어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0년 초에 소셜네트워크 세상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권의 책이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모두 186명. 그들은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인 적이 없다. 주제는 소셜미디어. 이 책을 만든다는 제안이

나온 뒤 불과 두 달 만에 무려 국판 단행본으로 431페이지의 원고가 작성되었다. 최초의 제안자였던 삼성전자의 두 직원은 트위터에 바로 이 제안을 내걸었다. 주제는 “소셜미디어는 무엇인가?”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구글 닥스에 대분류 목차를 걸어 놓았다. 이제 트위터들은 중분류, 소분류 제목을 붙여갔고, 분류별 항목마다 본문이 살을 찌워갔다. 한 사람이 한 항목의 글을 쓰면 다른 사람이 내용을 가필하고 또 잘못된 내용을 고쳐나갔다. 필요하면 또 다른 항목이 더해졌다. 특별한 청탁은 없었으나 저명인사들도 많이 참여했다. 마침내 책 제목은 《모두가 광장에 모이다》로, 부제는 ‘소셜이 바꾸는 멋진 세상’으로 제시되었다(공훈의 2010, 52-53). 우리의 통일교육 분야에서는 《모두가 통일의 장강을 건너기 위해 광장에 모이다》로, 부제는 ‘우리가 뉴미디어를 통해 창조하는 멋진 통일 세상’이라는 책을 발간할 수 없을까? 그런 통일교육은 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도 이러한 적극적인 민주적 통일리더를 자신들이 만들어가는 통일교육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 3. 통일 이후 갈등의 창의적 해결 능력 함양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아직 선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에 따른 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통일은 분명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동서독 통합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로 인한 일시적인 흥분상태가 사라지고 나면, 사회문화적인 갈등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따라, 어느 시기에 실현되는가에 따라,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은 다양하다. 아울러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통일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변화는 적응을 요구한다. 사

람들은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결국 적응이 안 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통일 후 우리가 겪게 될 주요 심리적 문제들은 현재 남한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부적응 실태를 기초로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가치관과 성격에서의 차이와 더불어 언어 습관의 차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생활관습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에 대한 지식의 부족, 민주적 시민성 결핍으로 인한 일탈 행위 발생, 거대한 정보량에 압도되어 생기는 지적 열등감, 사회적 지위의 격하에 대한 불만, 차별대우에 대한 민감성, 언어소통문제로부터 받는 위축감, 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이중적 태도,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에 대한 집단주의적, 의존적 태도,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사고의 경직성, 남한의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문화에 대한 비판의식과 심리적 갈등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루어 막 풍요를 맛보기 시작한 남한 사람들의 줄부적인 천박함이나 우월감에 부딪히면 당연히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나 긴장은 반세기에 이르는 분단 상황 아래서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통일된 사회를 이루고 하나의 사회속에서 삶을 일구어 갈 때, 더 큰 범위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의 목표는 서로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 나가는 것, 다를 때는 왜 다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이 함께 추구해야 할 일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정진경 2001, 12-14; 오기성 2000, 45-52). 이는 곧 통일교육이 민주 시민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다문화교육과 연계되는 지점이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온 사람들이 만나면 오해와 갈등,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 즉 이 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부정적인 인식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갈등을 상호 관계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라고 보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창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통일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갈등적 현상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추측해보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습자들이 “어떻게 됐을까? 왜 그럴까?” 등의 의문을 갖게 되고, 이를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교육에 있어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의 관심, 호기심, 지적 도전감을 상승시킴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예컨대 트위터의 경우 이러한 교육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트위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과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트위터의 정보는 대부분 정확하다. 이것은 사건의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트위터에 직접 글을 올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팔로어가 증가하는 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올리려고 한다(박형기 2009, 38).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둘 때 트위터를 활용한 통일교육에서 통일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북한 및 통일전문가, 교사, 북한이탈주민 등과 학습자가 트친(트위터 친구들)을 형성하여 함께 완성된 정보를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예컨대 통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관련 정보가 나오면 그 정보가 정확할 경우, 이를 리트윗을 하며 널리 공유한다. 그러나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답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한다. 그러면 맨 처음 정보를 올린 트위터는 문제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를 다시 트위터에 날린다. 이 같은 과정이 여러번 반복될 때도 있다. 이른바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것이다.

#### 4. 가슴으로 통일을 소망하는 정의적 능력 함양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 혁명의 특징 중 하나로써 감정 중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동영상, 그래픽 등 오감을 자극하는 형태로 진화되면서 기존의 이성 중심의 문화 체계가 감정 중시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셜미디어로서 트위터는 감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트위터들은 감동에 목말라 있다. 감동있는 사연은 언제나 환영받는다. 두 팔이 없지만 천사의 미소로 많은 트위터러의 심금을 울린 태오 이야기. 불치병에 걸린 아이가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진 ‘브렌든(Brenden) 스토리’, 전 경북대 박찬석 총장의 “나는 꼴찌였다” 등 가슴 뭉클한 사연은 언제든 큰 주목을 받는다. 물론 트위터 역사상 가장 많은 감동을 일으킨 사연은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이다.<sup>3)</sup>

학교 통일교육은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 함양(인지적 측면),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과 적극성 함양(정의적 측면), 통일을 위한 실천의지 실천 능력 함양(행동적 측면)이 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목표, 내용, 방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지적 측면에도 열정의 정의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이 포함될 수 있다. 인지적 측면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합리적 열정과 같은 정서적인 성향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 및 적극성이 판단능력과 관련한 인지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지적인 측면이 정서적 민감성 및 적극

3) 위키트리가 2010년을 결산으로 트위터 10대 이슈, 트위터 10대 유머, 트위터 10대 감동스토리를 준비했을 때,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것은 이슈, 유머가 아니라 감동스토리였다고 한다.

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민감성과 적극성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실천의지의 고양 및 실천적 행위를 촉발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인지, 정의, 행동의 영역에서 서로 공통적으로 중첩되는 부분은 바로 정의적 측면, 즉 통일문제에 대한 민감성과 적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여러 위급상황이나 딜레마 상황에서 학습자가 본능적으로 연민, 동정심을 갖게 되면 구원하려는 행동을 감행하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러한 연민 또는 동정심을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한 정서를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따지는 이차적 의사결정 과정을 갖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인지와 행동을 매개해 주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정의적 측면 즉, 통일을 학습자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소망하는 마음을 기초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많은 트위터들의 심금을 울린 ‘이태석 신부’ 이야기에 버금갈 수 있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 진정성 있는 애정을 토대로 분단의 고통을 느끼는 정의적(affective) 과정이 있는 통일교육, 통일을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소망하는 통일교육, 감동과 기쁨이 학습자의 가슴속에서 묻어나는 통일교육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sup>4)</sup>

## V. 결론

이 글은 뉴미디어 사회의 특징을 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

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덕과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종합적 시각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다른 교과와 달리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통일문제 관련 정의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고, 이를 토대로 통일리더십 함양을 위해 뉴미디어의 역할을 긍정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스마트 러닝이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과 청소년의 민주적 통일리더십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 개방성에 기초한 대안적 아이디어 창출 능력 함양, 통일 이후 갈등의 창의적 해결 능력 함양 가슴으로 통일을 소망하는 정의적 능력 함양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2011년 6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로서 스마트 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스마트 교육을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형 학습 체제로 교육환경,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평가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는 동력이라고 규정하고 학교 교육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 관련 법·제도 개선, 교육제도, 참여주체, 교수-학습방법, 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스마트교육의 시범적용을 통한 단계적 확대 및 대국민 홍보, 온라인 대학과목선 이수제(UP) 활성화를 통한 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IPTV 활용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3-19).

따라서 이러한 스마트교육의 일환으로서 SNS와 모바일폰 등의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확산될 경우 민주적 통일리더십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마트 교육과 결합된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와 관련한 담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높임으로써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과거 토론방과 같은 유형과는 달리 새로운 형태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상호작용적인 담론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반드시 장점만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크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남남갈등과 관련된 문제는 유사의견을 지닌 개인들이 사이버상의 요새화(cyber balkanization)를 형성함으로써 각 집단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커뮤니케이션 패키지(communication package)를 만들고 원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현상이다. 문제는 동의의견을 지닌 사람들만이 이루어

진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고립된 숙의(enclave deliberation)와 타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집단 구성원들에게 편중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트윗의 경우도 팔로워 집단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속적인 리트윗을 통해 정보의 진위여부에 따라 수정되기보다 극단화 및 증폭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에서 고립적인 상호작용과 타 집단의 의견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고 결국 이념적 양극화를 초래한다. 이른바 남남갈등을 더욱 견고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남북통일에 앞서 남남통일이 요원해지고 사회갈등을 표출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립적 관점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연구 집단들의 발언이 증대되어야 한다. 지식인의 역할, 사회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실질적 다수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매스미디어 역시 언론기관으로서 책임이 막중해질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에게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뉴미디어 활용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통일과 관련한 담론이 건전성을 회복하고 바람직한 집단지성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이 그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공훈의, 2010, 『소셜미디어시대 보고 듣고 뉴스하라』, 서울: 한스미디어.
- 김경석, 2012, “SNS를 통한 루머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논단』, 1월호 pp. 40-47.
- 김성태·김여진·최홍규·김형지,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채널 확장과 정치참여 변화 연구”, 『평화연구』, 봄호 pp. 55-233.
- 김재은, 2007,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종이접기 영재교육』, 경기: 종이나라.
- 김종길·박수호, 2010, 『디지털 사회의 일상성 탐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2, 『통일교육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서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박용현, 1997,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통일대비교육지원법의 입법방향과 실천과제』, 통일대비교육지원법 제정 공청회(서울, 9월 1일)
- 박형기, 2009, 『트위터 만인보-150자 세상의 사회학』, 서울: 알렘.
- 오기성, 2000,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_\_\_\_\_, 2011, “학교통일교육의 주요 방향에 대한 성찰”,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추계발표대회 『도덕과 교육에 있어서의 통일교육과 사회정의 실천방안』 (공주, 10월 15일)
- \_\_\_\_\_, 2000,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론』, 서울: 엑스퍼트월드.
- 정진경, 2001, “남북 문화이해지를 활용한 남북 상호 이해 교육”, 『학교통일교육과정 강의안』,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차현희, 2007, “뉴미디어를 통한 가상공동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신세대들의 집단행동”, 『정보디자인학 연구』, 제10집 pp. 207-217.

한규섭 · 박주용 · 이덕재, 2011, "소셜미디어와 오프라인 정치의 이중성: 트위터사용자와 정치엘리트의 정치이념", ICE 발표자료(서울, 11월 4일)

현대사회경제연구원, 2011, "스마트혁명이 가져온 충격과 우리의 대응", 『VIP Report』, 통권 제482호, pp. 78-83.

Craft, Anna, Jeffrey, Bob, and M. Leibling, 2001, *Creativity in Education*.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 Group.

Feinberg, W., 1990, "A role for philosophy of education in intercultural research: A reexamination of the relativism-absolutism debate", in. Page, Ralph ed., *Philosophy of Education: 1989 Proceedings of the 45th annual meeting of the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pp. 2-19. Bloomington-Normal, IL: Philosophy of Education Society.

Hausner, Lee, and Jeremy Schlosberg, 1998, *Teaching Your Child Creativity: A Play school Guide*. New York: Perseus Distribution Services.

Joyce, Michael, Isaksen, Scott, and Fred Davidson, 1997, *An Introduction to Creativity*, N.Y.: Napc/Copley Custom Textbooks.

Kaufman, James C. and John Baer, 2006, *Creativity And Reason in Cognitive Development*. N.Y.: Cambridge Univ. Press.

Kwok, Ron Chi-Wai, Cheng, Suk Han, Ho-Shing Ip, Horace and Siu-Lung Kong 2011, "Design of affectively evocative smart ambient media for learning", *Computers & education*, Volume 56, Issue 1, pp. 121-131.

Mean, Leo Ann, 2006, *On Creativity-Awakening the Creative Mind*. Philadelphia: Coronet Books Inc.

Negus, Keith and Michael J. Pickering, 2004, *Creativity, Communication and Cultural Value*. CA: Sage Pub.

Piirto, Jane, 2003, *Understanding Creativity*. AZ: Great Potential Press Inc.

Raina, M. K., 2000, *The Creativity Passion-E. Paul Torrance's Voyages of Discovering Creativity*. Oxford: Greenwood Pub. Group.

Rue, Nancy N. and Lyn Boyer, 2002, *The Creativity Book: It's a God Thing*. N.Y.: Zondervan.

Runco, Mark A., 1997, *The Creativity Research Handbook*. N.Y.: Hampton Press.

, 2007, *Creativity*, San Diego: Academic-Press.

Scott, Trevor H., 2005, *Enhance Creativity!: Increase Creativity With Hypnosis*, CA: Beverly Hills Therapy.

Shaw, Melvin P. and Mark A. Runco, 1994, *Creativity and Affect*, Oxford: Greenwood Pub. Group.

Wilson, Anthony, 2009, *Creativity in Primary Education*, OR: International Specialized Book Service Inc.

# A Desirable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Age of New Media

Oh, Ki-sung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within the age of New Media, and to sugges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with regards to unifica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first, this paper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age of New Media, examined the definition and features of New Media, smart revolution in the age of New Media as the change of social paradigm, the influence of smart revolution in the social area, and educ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age of New Media.

On the basis of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compared current unification education to Web 1.0  $\geq$  Web 2.0  $\gg$  Web 3.0. This type of unification education hold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a lack of A bond of sympathy, emphasis on the quantity aspects of education, hard-to-find hope, and greedy unification education under pressur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improve the age of New Media for the building of democratic unification leadership. First, education for unification corresponds with the smart generation that have self-directed learning inclinations, omnipresence tendencies, instantaneous access-oriented

s-learning, openness, creativity, and flexibility. Furthermore, teachers have to use social network services in unification education quite freely. Thereby, unification education will cultivate an environment where learners have the ability to engage in creativity thinking, create new ideas on the basis of openness, competence of conflict solution in unification Korea, and learner's aspiration to achieve unification.

**Keywords** : democratic citizenship, democratic unification leadership, unification education, smart revolution, SNS